



제6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기독교대학의 인재양성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
Educating Future Christian Leaders in Christian Universities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

도르트대학 에릭 호에크스트라 총장

백석대학교 최갑중 총장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서 주관하여 “God’s Calling to Academic Work”(서울, 7.23~25, 2002), 제2회는 백석대 주관하여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천안, 12.14~16, 2004), 제3회는 고신대 주관으로 “21세기 기독교 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부산, 6.19~21, 2006)을 주제로 하여 캘빈대 교수와 외국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교수개발 세미나 형식(Faculty Enrichment Program)으로 진행되었다. 제4회는 한동대 주관으로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경주, 6.15~16, 2009)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5회는 백석대 주관으로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부여, 6.22~24, 2011)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제4회 이후로는 대회 명칭을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로 변경하여 학술대회의 형식을 도입, 현재 기독교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적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연과 강좌, 논문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에서 도르트대학의 총장인 에릭 호에크스트라Erik Hoekstra를 포함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기독교대학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분야별 강연 및 논문 발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는 2001년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의 기독교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대학 Calvin College(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Kuiper Seminar(카이퍼 세미나)를 국내에 도입하여 기독교학자 및 교수들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회는 한동대에

에릭 호에크스트라 Erik Hoekstra 도르트 대학 총장 인터뷰 세상이 던지는 OR 질문에 AND로 답하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 인터뷰어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의 기초강연을 위해 미국 도르트 대학 총장인 에릭 호에크스트라(Erik Hoekstra)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이며 연구본부장인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가 그를 만났다.

* 편집인 주 : 당시 좌담에 함께해주신 동역회 고문이신 웨슬리 선교사님과 도르트 대학의 심재승(Jay Shim)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문 중 장수영(장), 에릭 호에크스트라(에릭), 웨슬리(웨), 심재승(심)으로 표기하였습니다.



Question 장 총장님의 삶을 회고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총장님의 삶에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있으셨는지, 특히 언제부터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개념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에릭 부모님을 관찰하면서 (세계관 개념을) 배운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장인어른 모두 같은 학교 트리니티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Calvin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세계관적 언어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정치나 정의, 경제 개발, 그리고 여성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Question 장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에릭 정치를 예로 들자면, 어머니는 민주당을, 저는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각자 적용하여 다른 입장에 다다른 것일 뿐이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어머니와)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논쟁 중에는 늘 원칙에 근거하여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은 주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농담이 있는데, 성경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으면 “그건 말이야, 히스기야서 3장 9절에 나와 있기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하면 정말 성경에 나온 것같이 들리니까요. (웃음)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제가 다닌 트리니티대학 교수님들은 성경에서 어떤 주장의 근거를 찾을 때, 개별 성경 구절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원칙 같은 성경적 원칙을 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지, 오래 전 로마시대 상황에서 쓰여진 바울의 글을 21세기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드러난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원칙들을 논리에 맞게 오늘의 이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웨 한국은 전과 다르게 가족이 흩어지는 양상이 두드러집니다.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어떤 토론을 하시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nswer 에릭 (가족에 관한 한) 집에서는 제 아내와 제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을 두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 식탁에 앉으면 긴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가족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각자의 스케줄과 일로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얘기를 나눌 시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Question 장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Answer 에릭 예, 식탁에서는 핸드폰,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금지입니다. (웃음)

Question 장 그러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는 텔레비전도 볼 수 있죠. (웃음)

Answer 에릭 저녁식사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딸아이가 곡을 정하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가족 모두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얘기도 나누고요, 그런 저녁시간이 없다면 아이들도, 저도 모두 바쁘니까 각자 정신없이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일종의 신성한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거죠.

Question 장 하지만 (식탁에서) 일종의 논쟁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nswer 에릭 큰아들은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되어도 ভাল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싸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애 안에서 그걸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로서 제 역할은 아이가 저와 의견이 같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제 의견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네가 맞다, 아들

아”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17살에 불과하지만, 가끔 실수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언제까지 집에 돌아올 것인지, 차를 사야 할 것인지…

Question 장 졸업 파티에 같이 말지요?

Answer 에릭 네, 그런 모든 것이요.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가 이런 것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넘어져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힐까봐 뒤에서 같이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냥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놔두세요.”라고 하더군요. 때론 그런 결과가 아이들이 걸음마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요. 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Question 장 그래서 “모든 은혜는 모험이다”라고도 하지요.

Answer 에릭 네, 분명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다소 옛날 방식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CNN 보도를 듣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젊은이 50-60%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세대”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16살과 17살짜리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번 여름, 모두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그중 한

녀석은 주 50시간 창문 닦는 일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와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이에게 많은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살 이후, 30대가 되면 일할 시간이 충분하니 어려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1살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었습니다. 저는 가끔 워커홀릭이라는 직책을 받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다 싶게 일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개혁주의 기독교 사상의 요체입니다. 물론 그 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반응,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 아들이 이번 여름에 창문 닦는 일이나, 제가 대학을 운영하는 일, 학교를 위해 모금운동을 하는 일,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일도 그들이 될 수 있겠지요.

Question 장 아버님도 기독교대학의 총장님이셨으니, 총장님께서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본으로 삼으셨겠네요. 하지만 청소년 때나 어렸을 때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하는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나요?

Answer 에릭 있습니다. 제가 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긴 한데요, 제가 열한두 살쯤부터 품었던 질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단순

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일까? 내가 만일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불교적 세계관을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을까?” 였습니다. 물론 아니지요. 믿음은 스스로 생각하여 마음속의 의문을 극복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개혁적 세계관에 세뇌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아빠가 그렇게 하라 해서 기독교대학에 가거나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하죠. 만일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리하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30살, 40살, 50살이 되어 이 어려운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주변에 없다면 큰일이 아닐겠습니까?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여 믿음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알미니안들의 주장과 같이 인간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르트 대학은 개혁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반알미니안(Anti-Arminian)적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또는 스스로 (의문을) 풀어 내서가 아니라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겪게 하셨고 주님만이 제 안에서 신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믿음이기는 합니다.





Question 장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읽었는데요. 좋은 리더는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적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우에는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가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은 더 심하게 “그게 바로 당신이 사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실수를 인정할 경우 그것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가끔은 정말 못된 사람이 악용하여 리더를 고약한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nswer 에릭 물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생각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라던가 “사람들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는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리더인 제가 중요한 회의에 빠지거나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주에 또 빠지거나 늦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제 사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지요.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리더가 직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그 날 저녁 “아, 내가 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었는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당신이 실수를 했었고 내가 고쳐줄 필요가 있었지만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내 잘못입니다.”하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사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도 제가 남편으로서 의미 없는 사과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저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제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제 리더십을 앗아가진 않습니다. 물론 (약함을 인정하면서 리더십을 지키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 회사의 사장이었을 때, 매우 교만하다는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했고, 회사 밖에서 코치나 멘토를 데려와 관찰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잘못할 때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 모두의 도움으로 서서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심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Accountability”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도 바로 이 개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accountability”는 듣기 힘든 표현이지요.

Answer 에릭 Max Depree는 Herman Miller라는 가구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직원이 기업에 빚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교직원이 학교에 빚지고 있는 것은 무

엇입니까?”라는 질문합니다. 저는 리더들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직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들도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임무는 도르트대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직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 반 대학만큼 월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봉이 아닌 어떤 무언가로 최고의 교수들이 계약(언약)을 맺으러 오게 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한 도르트에 최고의 교수들을 모시고 있으니 저는 그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Question 장 그런 리더십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Servant leadership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은 실행 불가능한 모순 아닐까요?

Answer 에릭 주님의 가르침은 때문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가 되고 싶은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러나 리더가 되는 것과 동시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Question 장 총장님이 도르트의 차기 총장으로 지명되신 때의 연설 동영상 봤는데, “세상이 던지는 OR 질문에 AND 대답을 하자”라하신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섬길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Answer 에릭 예, 리더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James Hunter는 아마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서는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힘과 권위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 총장으로서 제게 허락된 힘을 이용하면 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nter는 힘을 이용한 업무 처리는 좋지 않

은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항상 말한다면 최악이죠. 단순히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받은 그리고 모든 직원들로부터 인정된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섬기는 것과 리더십을 동시에 생각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요? 사실, 총장이 공동체에서 유일한 리더는 아닙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부장, 그들 모두 리더이지요. 심지어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도 각자 어떤 방면에서는 리더인 셈이죠.

Question 장 기독교인들이 훈련을 받는 것은 기독교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르트 같은 기독교 대학의 졸업생들도 간혹 IBM, DOW chemical, 무기 제조회사 등의 직원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시도한다면 칭찬을 받기도 하겠지만, 때론 핍박도 당하겠죠. 그리고 나면 움츠러들어 다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가 기독교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로부터 자주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비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갖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만, 비기독교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Answer 에릭 어머니도 평생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녀는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간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사실, 서번트 리더십은 일반 세속적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outhwest Airline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으로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25년간 Southwest Airline의 실적을 보면, 미국에 있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재무수익률이 높습니다. 항공업계는 물론 모든 일반 회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25년간 항공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수익이 줄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Southwest는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는 전미 최고의 회사였죠. Southwest에서 구인 광고를 내면 수천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들의 기업 문화 때문이지요. 제 생각에 Southwest Airline처럼 기독교



를 서번트 리더십에 기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맡은 분야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18개월 후 그는 갑작스럽게 출근길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창립자가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가 고용한 저를 포함한 다섯명이 그의 미망인으로부터 회사를 구입했고 서번트 리더십을 중심 가치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구입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만에 연 2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매출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학교로 돌아왔기에 더 이상 회사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 회사는 1억 달러 매출을 막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첫 25년간 명령과 통제 형식으로 회사가 운영됐을 때는 0달러부터 2천만 달러까지 매출이 올랐지만, 그 후 12년 간은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매출이 올랐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없고요, 한국은 어떤지 몰라도 미국에서 노조가 없는 건설회사는 드뭅니다. 미국의 건설회사들은 계속해서 노조가 들어와 투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팀 관리자로서는 동안 단 한 번도 노조가 결성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들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고 업무상으로도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업무에서의 인간적 풍요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사람들이 일하면서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 회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적 표준 원리에 기반하여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Dow chemical 이나 Donald Trump organization 같은 곳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Donald Trump가 왕이고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Donald Trump사는 Donald Trump가 죽기 전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Jim Colins는 그의 책 『Built to last』에서 시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저는 한때 25년 역사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는 곳이었습다. 당시 그 회사의 창립자는 은퇴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창립자의 회사 운영 방식은 명령과 통제였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그를 통과해야 했고, 누구나 할만한 실수조차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어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도 끝날 무렵 “내가 이미 생각했던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라 할 지라도요. 연간 매출 2천만 달러로 성장한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 아들이 자리를 대신하면서 사람들을 새로이 고용했습니다. 새로운 재정부장, 실행부장, 매니저,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는 말했죠, “우리는 이 회사

Question 장 분명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만, 기독교적인 방법을 고수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게 현실 아닐까요?

Answer 에릭 제품이 좋지 않다면, 서번트 리더십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면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르트대학에서, 단순히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 때문에 좋은 학교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취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 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면 조금 이기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모든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장 사실 방금 말씀하신 ‘좋은’이라는 단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원칙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게 세 상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받아드려 질지도 의문이고, 결과도 그렇지 않을까요?

Answer 에릭 기독교 예술에 있어 가장 최고인 부분 중 하나는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가가 기독교라서, 혹은 잘 그리지 못했지만 교회를 그릴 그림이라고 해서 좋은 미술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원리는 공학이든 마케팅이든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분야마다 고유의 가치는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결국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제 말은 하나님은 그게 화가나 간호사, 의사이건 간에 우리 은사를 계발하고 사용할 때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일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다.

Question 장 성경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항상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Answer 에릭 물론입니다. 창업을 가르칠 때는 실패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일은 모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려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Question 장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젊은 기독교 학생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Answer 에릭 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성공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서에서 리더가 되는 것, 리더로서 비록 5,6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부하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섬기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업무를 바라보면서도 늘 기독교적 원칙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CEO는 아주 적은 수이며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주방에 적어 놓으신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가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라(Bloom where you’re planted).”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에 당신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20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 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밟고 나아가시고 나머지는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장수영 현재 포항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실행위원이며 연구본부 본부장이자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사)나눔과 기술,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의 공동대표이다.